

코웨이 얼음정수기 냉각구조물 결함

니켈 논란' 이 불거진 코웨이 얼음정수기에 대한 조사결과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드러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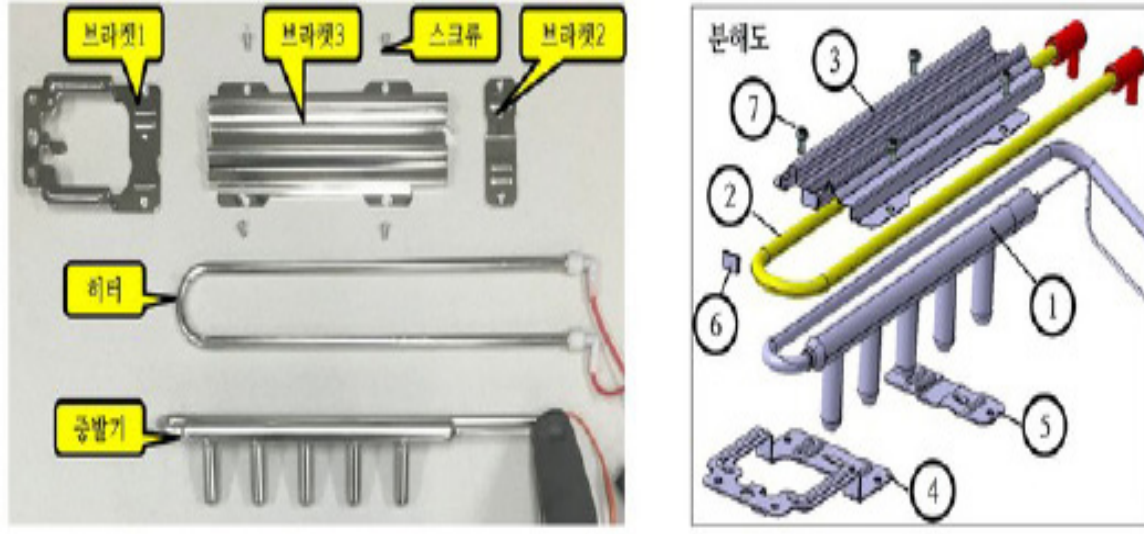
조사위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라고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얼음정수기의 제품결함은 증발기의 니켈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돼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 코웨이는 제빙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좋은 구리 재질을 사용했고 내부식성 등을 위해 니켈도금을 했었다.

특히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이 확인됐다.

실제로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와 갈이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발기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구조물에서 발견됐다.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 케이스(냉수플레이트) 안에



간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조사위는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니켈도금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위는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10일 이내 단기응용으로 가정해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인

며 최대 2년 사용을 고려해 US EPA의 어린이 장기(7년 응용 기준) 권고치(0.5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70년) 매일 2L씩 음용한 것으로 가정해 US EPA의 음용권고치(0.1mg/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 시 일부 제품에서 인해 위해 우려가 있으나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위는 타사 얼음정수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어 타사 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3종 얼음정수기 이외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해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병민 기자

[독자고발] 법무부장관님께 바란다?

현재 당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동산강제면탈(땅빼돌리기) 의혹에 연루되어 한사람의 재산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당하면서 인생까지도 처절하게 파멸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그는 억울하여 당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당사자(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체제 하려는가 하면 확실하게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방임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욱 충격적일수록 공문을 사고 있는 것은 이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써야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짱으로 맞서고 있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역력해 보인다. 충남 당진시인, 허가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K모씨는 2011년 3월 16일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토지 560㎡(169평)에 3억원을 근저당 설정했다.

이 토지는 최초로 김모씨(신모씨 사촌 매제) 소유로 되어있었는데 이후 매매과정에서 부부(차명)인 안모씨와 그의 처 김모씨가 2/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최초로 김모씨가 소유한 이 땅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송모씨의 남편 신모씨의 땅으로 추정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최초 땅 소유자 김모씨는 이혼소송 중인 송모, 신모씨 부부와 사촌 매제의 인척 관계다.

당진시 공무원이 이 토지에 3억원을 설정한 이유는 "부친인 김모씨(작고)가 작고하면서 7,000만원의 채무를 승계 받아 이자와 함께 토지 560㎡(169평)에 3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됐다"고 녹취록과 제보에 나타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 K모씨는 "설정, 돈 문제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설정은 했



지만 돈을 받은 게 없다" "신모씨(송모씨 남편)에게 조기도 받고 양주도 받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면서 "그 얘기 나중에 하자" "김찰이든 법원이든 해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안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K공무원은 "법원이나 재판기일에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면 제가 사장님 편에 입장에서서 말씀을 드리든, 무슨 말씀이든지 할 거 아니냐?"고 법정에서 불려주지 않는 것을 되레 궁금해 했다.

특히 K공무원은 "사모님! 법원에 가서 진술하게 되면 그 진술이 사모님한테 유리하든지 될지 되지 않겠나?"면서 저는 공무원 퇴직 생각하고 있다. 또 법에서 나오고 징역가라면 징역도 갈 생각이 있다. 저도 끝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여운을 남기며 각오에 찬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송모씨(이혼소송 중인 신모씨 부인)는 "1인 피켓시위를 안 할 테니 사실(3억원 설정)대로만 써주면 마음에 나오는 진실대로만 저는 그런걸 바라지 뭐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도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마음 편하게 해 주시면 피켓시위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송모씨는 K공무원에게 "사모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너무 인상도 좋

으시다"는 말에 K공무원 부인은 "저희가 남한테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닌데...."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한편 당진시 K공무원은 "송모씨의 남편 신모씨와의 사이는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다"며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이 사건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 사기에 해당된다고 서울중앙지검 모검사님께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독자게 전달했다는 것을 본기자가 녹취내용을 확인 했다.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모검사는 약5개월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유감스럽게도 평택지청으로 이송했다.

독자는 억울해서 대검찰청 검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본기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면서 피눈물을 1시간 가량 울면서 대검찰청앞에서 분신자살할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본기자는 진정서 시위를 안 할 테니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 보냈다.

대검찰청 검찰부에 바란다. 하루속히 이 진정서를 검토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 착수해서 힘도, 백도 필요없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채봉 기자

당진시 심훈선생 종손 심천보 씨,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롯데전 시구한다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가이자 문학가인 심훈선생(1901~1936)의 종손인 심천보(송악읍, 76세) 씨가 심훈선생의 작고일인 9월 16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의 롯데전 홈경기 시구자로 나선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 '그 날이 오면'과 농촌계몽소설 '상록수'의 저자로 잘 알려진 심훈선생은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문학작품활동 뿐만 아니라 영화 '장한몽'에서는 남자주인공 역으로 영화에도 출연했고, 영화 '민동이 뜰 때'를 직접 제작하며 영화감독 생활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스포츠를 민족정신 발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던 민족주의자였던 그는 1929년 일제강점기 당시 유일하게 야구를 소재로 한 시 '야구'를 발표할 정도로 신문물인 야구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16일 심천보 씨의 시구는 이처럼 야구에도 관심이 많았던 심훈선생의 작고 80주년을 9월 16일을 기념하기 위해 당진시가 대전·충남지역을 연고로 하는 한화 이글스 야구단에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시구자로 나서는 심천보 씨는 소설 상록수의 남자주인공인 박동혁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재영 씨의 아들이다. 현재 심훈문학연구소 이사



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2014년 심훈기념관 '상록수'를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유품 기증해 오는 등 심훈선생의 연구와 업적을 기리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구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심훈선생의 알려지지 않은 문예작품과 다른 분야의 활동에 대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시대를 앞서

갔던 심훈선생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분들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제107호인 필경사는 심훈선생이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대상인 '상록수'를 집필했던 곳이다.

당시 그는 직녀성의 원고료와 빛을 내 손수 이집을 지은 뒤 2년 동안 칩거하면서 작품을 썼다.

당진시는 일제강점기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인이었던 심훈선생의 향일 및 계몽정신을 후세에 선양하기 위해 필경사를 복원한데 이어 지난 2014년 9월 16일에는 필경사 옆 부지에 심훈기념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현석 기자

금융에 모든 순간

NH농협은행

이러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행복의날 따지

힘내라 코리아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당신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드립니다.
안녕! 당신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은행,
NH농협은행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100% 약속이든 은행! 4년 연속 사회적기업 1위 은행